

# 도교육청-의회 갈등 결국 대법까지

### 전북교육청, 도의회 직속기관 명칭 변경 조례 재의결에 대법원 제소 방침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과 관련해 도교육청-의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재의결안을 지난 24일 재의결함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1일 도의회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고 한다는 명분으로 전북교육청 소속 8개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을 의결해 이송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한 점 ▲집행기관이 수차례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은 경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 개입인 점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불명확한 반면 8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명확한 점 ▲도내 많은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 등을 통해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어 5월 29일 재의결요구를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신중한 판단으로 재의결을 했겠지만 이날 재의결된 사항은 법령위반이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7월 14일 전에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에 제소를 할 경우 판결 시까지 통상적으로 1~2년이 걸리므로 추후 무효판결을 받는다면 해당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개정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해 기존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다.

최근 직속기관의 실제 이용자들이 구성된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공무원 노조 등의 성명서에 이어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사)마한백제민속예술제전위원회, 익산시 민사회단체 등의 민간단체에서도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의 재의결요구안 재의결로 교육수요자와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추후 대법원 제소 등의 과정이 도의회의 마찰로만 보일 수 있어 도교육청은 우려를 표했다.

/정은성기자

# 교육현안 협력 '어깨동무'

### 전북교육청-도내 국회의원 교육정책간담회

도교육청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회의원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를 26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진과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 교육민주당 소속 의원 9명,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교육청과 국회의원들은 이날 전주 에코시티 학교설립, (가칭)전북교육박물관 건립 추진 등 지역 교육 현안과 교육자치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교육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전주 에코시티 제2중학교 설립 방안을 찾는 데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코시티 제1중학교 개교 이후 6,0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진 이곳에 학교설립

수요가 높지만 교육부가 학교 신설보다는 구도심 학교의 에코시티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구도심 학교 이전은 해당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과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어 학교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두 번째 현안으로는 군산 구도심에 추진 중인 (가칭)전북교육박물관 건립이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박물관 건립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박물관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설득과 예산 확보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정책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을 사전 접촉했으며,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서울에서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사전 논의과정에서 농어촌 지역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 및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큰 점을 지적하며, 농어촌 교육발전 방안도 심도 있게 논할 것을 제안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자몽' 개관식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自夢) 개관식을 갖는다.

27일 오후 2시 자몽 1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개관식은 자몽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돼 기획·운영하며,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군산 관내 기관장 및 지역 주민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전행사로 보물찾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1부 개관식 공식행사에 이어 2부에서는 '우리가 자몽이다!'를 주제로 학생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3부에서는 개관기념 영화상영과 집담회, 군산 마을교육생태계를 상상하다 가 열린다.

아울러 자몽의 과정을 기록한 사진 전시회, 개관 기념 식수, 개관식 기념 자몽 굿즈(기념품) 제작, 자몽 개관식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된다.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은 청소년이 가꾸고 청소년이 누리는 공간으로 구 월명초 부지에 지상 3층 28실 규모로 조성됐다. 1층은 목공실, 도예실, 만남의 광장 카페테리아, 요리실, 노래방을 운영하고 2층은 시청각실, 전시실, 사무실, 사진스튜디오, 밴드실, 몸짓실로 꾸며진다. 3층은 미술실, 공부방, 무언가방, 다목적 세미나실, 컴퓨터실 미디어실 등으로 꾸며졌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이다.

군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동아리, 체험활동 등을 통해 친구들과 만나 소통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교육협력을 더 촘촘하게 준비해 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5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Depth IR(Investor relations) 캠프'를 개최했다

## 최신 투자 트렌드 분석 · 창업생태계 활성화 교류의 장

### 전북대, 기업 대표자 30여명 대상 IR 캠프 호응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이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교육 캠프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창업지원단은 25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Depth IR(Investor relations)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IR 캠프에서는 지역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직·간접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을 통한 투자 장애요인 해소기회를 마련하

기 위해 국내 투자회사의 대표와 심사역을 초빙해 특강 및 모의 IR 발표가 진행됐다.

창업기업 대표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최신 투자 트렌드 분석과 투자유치 전략 사례 및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유치 요령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또 발표와 멘토링을 통해 기업의 경영현황 및 기업성장 로드맵 점검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IR 캠프

를 통해 우리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교류의 장 마련과 투자기관과 기업의 소통 창구를 제공하겠다"며 "후속 프로그램 지원으로 투자전략프로세스 확립과 지속적인 투자매칭 기회 제공을 통해 기업 성장 모멘텀을 구축하는데 더 좋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전기홍 전주대 교수, 전국창업선도대학협의회장 선출

전기홍 전주대 창업지원단장이 2020년 전국창업선도대학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전 단장은 최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전국창업선도대학협의회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뽑혀 전주대는 전국창업선도대학협의회 회장교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전국창업선도대학협의회는 권역별 창업클러스터로 선정된 거점 대학 간 협력을 목적으로 2011년 구성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초기창업패키지'에 선정된 33개 대학이 소속돼 있다. 본 협의회는 향후 회원대학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중소벤처기업

부 및 창업진흥원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기홍 신임회장은 "단순히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선도대학협의회가 아닌, 창업 전반에서 대학의 명확한 역할 제시하고 대안적 창업 정책 입안하는 명실상부한 대학 기반 창업의 싱크탱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기자



## 도교육청, 대입전형전문가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도내 고등학교 교사들의 대입 진학지도 역량강화에 나섰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전형전문가 집중연수가 오는 27일 전주 왕의지빌에서 개최된다.

이번 집중연수는 대입전형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단위학교의 대입전형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대학 진학지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내 일반계고 3학년 부장 또는 3학년 담임 중 희망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집중연수는 대학별 설명회와 그룹별 간담회로 진행된다.

특히 도내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참여해 해당 대학의 주요 입학전형을 안내한다. 참여 대학은 건국대, 국민대, 동국대, 성균관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8곳이다.

/정은성기자

# JJC 지방자치 TV

## 지역 문화 콘텐츠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